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mics SNU
제 007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 12 일

경제학부 소/식/지

- 인사말
- 경제학부소식
- 교수기고
- 동문기고1
- 학생기고1
- 학생기고2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동문 여러분.

김인준(경제학부 교수)

산에는 벌써 신록이 우거져서 여름 기운이 만연합니다. 지난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국가도 서울대학교도 경제학부도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올 안에 예정되어 있지만 서울대학교도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에 새 총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경제학부도 단순히 선진국 대학을 benchmarking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과 서울대에 맞게 차별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 연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3대 기능인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를 21 세기 수준에 맞도록 끌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학부는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학부교육과 대학원 교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학부 교육은 우리 경제학부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의 리더로 자리잡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 사회생활을 체험하면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인턴 제도 등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경우 동문들의 성원과 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경제학 교육과 연구 발전을 위해 노벨상 수상자 수준의 경제학자 초청 프로그램(1차년도 사업예산 확보)과 외국인 또는 해외 교포학자 초청사업(2003년 시행 예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학원 교육 과정은 경제학 연구자 과정과 기업 경제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과정의 경우 경제전략 연구, 경제동향 연구, 경제분석 연구 등 새로운 강좌를 신설하여 기존의 이론 위주 미시, 거시, 계량 경제학 과목과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세미나 코스를 활성화 하여 기업전략 세미나, 산업 전략 세미나, 응용 거시 세미나, 응용 계량세미나, 금융 공학 세미나, 그리고 금융경제학 세미나 등을 단계적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 2년차 과정은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세미나 참석으로 직장 생활과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제전문가 과정은 특히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되어 재 충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동문 들과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후 여러 경로를 통해 이 과정에 대한 소개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각 분야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경제연구소에 주제별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기업, 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Seoul Journal of Economics(계간)를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세계 최고의 학술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학부의 변화에 대한 노력은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이어질 때 그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동문들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경제학부 발전을 위한 여러 동문들의 지도 편달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학부행사

1. 교무

1) 2001학년도 전기 졸업식
▣장소: 2002.2.26 문화관 중강당
▣학위수여자
박사: 김성수(논문제목 : 벤처기업의 효율성, 생산성 및 R&D 투자지출에 대한 비교 연구, 지도교수 : 이 근)
석사: 김득현 등16명
학사: 우희석 등 180명

2. 학생

1) 200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생 배정
▣학부: 발전기금(특정 6명), 전액면제(38명), 기성회비면제(38명), 수업료면제(217명), 계 299명(전체학생의 31%)

3. 입시

1) 2002학년도 대학원 전기 모집
▣필 답 고 사: 2001.11.24(토)
▣석사과정 20명, 박사과정 1명 합격

2)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 457명 합격

3) 2002학년도 학사편입학고사(2002.1.30)
▣3명 선발 (해양학과, 전기공학부, 한동대)

4)2002학년도 전과(부) 시행
▣일시 : 2002.1.28(월)
▣8명 전출(법과대학), 11명 전입(지리학과, 인류학과, 불어불문학과, 서양사학과, 경영학과, 독어독문학과, 자연과학부, 조경학과, 의류학과, 전기공학부, 심리학과)

4. 행사

1)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제2기수료식
▣일시: 2002.2.15(금) 오후6시30분
▣장소: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소강당
▣경제연구소는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한국경제의 대응전략과 핵심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한다. (1기 수료자 41명, 2기 수료자 43명)

2) 2002학년도 1학기 향상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일시: 2002년 2월 20일(수) 오전11:40분
▣장소: 프레스센터 매화실
▣수혜자: 경제학부 15명

3)경제학부 동문초청강연
▣일시 : 2001.11.23(목) 박물관 강당
▣연사 : 김정태(국민-주택은행장)
▣강연제목 : 한국금융산업의 미래
▣경제학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동문들을 초청하여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와 교훈을 후배 재학생들이 본받을 수 있는 공개강연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 2003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안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은 200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입시가 완전 무시험 전형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경제학부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 산업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대학원 과정에 그간의 경제연구자 과정과 병행하여 경제전문가 과정을 두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현장의 수요에 경제학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새로운 경제전문가 과정은 2003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뽑는 금년 2002년 11월의 입시부터 적용되며 두 과정 모두 신입생 전원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합니다. 실

무에 유용한 전문 경제지식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동문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의 우수한 인력이 금년 11월의 경제학부 대학원 석사과정 입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경제학부 홈페이지(http://econ.snu.ac.kr)와 별도의 홍보물을 통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석사 1년차 1학기 (과정에 따라 다르게 이원적으로 운영함)	
경제학 연구자 과정	경제전문가 과정
미시경제학 연구	기업 및 산업의 경제전략 연구
거시경제학 연구	금융, 화폐 및 경제동향 연구
경제통계학 연구	경제예측 및 금융계량 연구

◈석사 1년차 2학기 및 2년차 (석사과정생 개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함)
과정에 따라 이론경제학분야, 계량경제학분야, 산업경제학분야, 금융 및 화폐경제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경제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분석기법을 소개하는 다양한 세미나 과목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가로 개발된 세미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전문가 과정의 경우 1년차에는 full time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2년차에는 실무와 병행하면서 실무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연구소의 기업경쟁력 연구센터, 산업연구센터, 국가경제전략연구센터, 동아시아경제연구센터, 세계경제연구센터 및 금융계량실(financial econometrics lab)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세미나 과목
기업연구 및 산업전략 세미나: 국내외 기업 및 산업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
거시경제 및 응용계량 세미나: 거시경제 동향의 측정 및 실증분석
금융수학 세미나: 금융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의 분석에 필요한 수학/통계학 소개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School of Economics SNU
제007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12 일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교수기고
·동문기고1
·학생기고1
·학생기고2

외자정책과 기업가 역량

이승훈(경제학부 교수)

경제적 풍요는 어디서 올까? 상속받은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부자가 된다. 또 벌어들이는 수입이 커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 점은 나라경제도 마찬가지다. 중동국가들처럼 석유자원이 풍부하면 부국의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철저히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축복은 머나먼 남의 일이다. 우리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려면 열심히 일하여 많이 벌어들여야 한다. 사람마다 게으름피우지 않고 근면하게 일하는 길만이 번영을 불러오는 길인 것이다. 여름내 즐기는 배짱이보다 쉬지 않고 일하여 저축하는 개미의 미덕을 높이 평가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마다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경제가 반드시 풍요로와 질 것인가? 동화의 개미는 자기가 먹을 것을 열심히 수집하여 비축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인간 노동은 다르다.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만들고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쓸 것을 만드는데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사회적 분업은 인간의 노동이 동화 속 개미의 노동과는 매우 다를 것을 요구한다. 동화의 개미는 열심히 일하면 항상 성공하지만 현대의 개인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더라도 실패할 경우가 있다. 개미는 자기가 땀흘려 모은 먹이를 언제고 유용하게 소비하지만, 인간세계에서는 내가 열심히 만든 것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보상은 다른 사람들이 그 노동의 성과를 사주어야 실현된다. 아무리 열심히 만들었더라도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이 노동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것이다. 즉 노동의 가치는 노동의 결과 생산된 제품이 팔려야 인정받는다. 그런데 현재 노동을 투입하는 단계에서는 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지 모른 채 노동을 투입하여야 한다. 앞날을 잘 내다보고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드는데 노동을 투입하였으면 성공이다. 그러나 기껏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그 물건이 전혀 팔리지 않는 경우도 현실에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사주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것이 먼저이고 이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흔히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게된 것은 그 동안 저임금 근로자들이 피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기업가들이 정해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였을 따름이다. 어떤 일이 과연 사람들에게 팔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노동자 아닌 기업가들의 몫이었다. 기업가는 수행할 사업을 결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한다. 만약 기업가들의 결정이 잘못되어 그 제품이 팔리지 못했다면 근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망한다. 기업가는 기업이 망하더라도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을 책임지고 지불하여야 하지만, 기업가가 잘못 이끈 근로자의 피땀을 시장은 결코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인을 단지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 왔던 때문만으로 파악하는 발상을 확대하면 개도국들이 가난한 까닭은 그 국민들이 게으르고 일을 안 하기 때문인 것으로 된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빈곤한 나라의 거리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찾아 헤매는 인파가 가득하다. 근로자들은 일하려 하는데 이들을 규합하여 할 일을 배정해 주는 기업이 없는 것이다. 시장이 사줄 일거리를 제대로 찾아내어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주는 기업가가 없는 것이다. 적절한 일거리를 찾았더라도 기계설비 등을 갖춘 일터를 마련할 자본도 없다. 수많은 개도국들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과거 우리의 기업들은 다행히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성공하였고, 또 이들이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를 일구어낸 것이다.

한 나라경제가 견실하게 발전하고 민생이 풍요로우려면 우수한 역량의 기업가가 이끄는 기업들이 많아야 한다. 기업들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져서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노동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로 다투고, 그 결과 임금이 오르고 근로조건이 더 좋아질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기업가역량은 현재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기업가 역량은 본격적 산업화가 시작된 60년대 이후부터 배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농업위주의 전통사회에서 산업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이 봉착한 최초의 애로는 경영인력이 태부족한 점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비축된 내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조달은 곧 외자도입이었다. 그러나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효과적인 외자유치정책을 펼쳐야 했다. 외자유치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거나 차관을 도입하는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된다.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법인세를 탕감하는 등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설립되는 기업은 외국인 소유로 남는다.
차관은 우리 기업이 외국인에게 빌리는 빚이다. 외자는 도입하되 기업경영권은 우리 기업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외국인도 국내 기업만 상대로 결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매 차관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주어야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급보증까지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일단 한 번 차관을 배정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이 사업자는 정부의 신뢰를 얻었고 거듭 특혜를 받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하였다. 그리고 저임금만이 수출경쟁력의 핵심이었기에 저임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부의 수출촉진정책은 노동탄압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신산업을 새로이 일으킬 때마다 정부는 국내시장의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수입제한정책을 펼쳤다. 항상 저임금이 보장되고 국내시장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출을 겨냥하는 기업활동은 우리나라 개발 년대 기업활동의

표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거듭 특혜적 지원을 받는 가운데 반대급부적 부정부패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강화하였고 정부의 보호는 그만큼 더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원정책은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모자라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성공적이었으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산업역량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가 역량은 그간의 정부 지원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왜곡되었다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수출 주종품이 고급 중화학제품으로 바뀌었는데도 과거 고정된 수요가 있는 경공업제품을 수출할 때처럼 만들면 무조건 수출된다고 판단하여 과잉투자의 오류를 범하고 97년 대환난을 초래하였다. 어려울 때마다 정부지원을 바라는 병폐도 문제이다. 또 불투명한 경영체제를 이용한 재벌기업주가 기업의 잉여를 사적 용도로 빼돌리는 소위 tunneling의 사례도 빈발하였다. 이밖에도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차관도입을 위주로 한 외자정책이 빚어낸 불가피하였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직접투자를 위주로 외자를 유치하는 전략을 택한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청렴한 정부, 첨단적 사회 간접자본, 그리고 세제상의 혜택만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성공한 나라이다. 투자환경이 너무 좋아 다른 나라들보다 임금이 높은데도 외국인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물론 초기에 싱가포르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외국인 소유이었고 현지인들은 피고용자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식 경영을 가까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운 싱가포르인들은 스스로 기업을 세워 싱가포르 경제는 물론 동남아시아 경제 전체를 이끌고 있는 중이다. 기업가 역량이나 기업지배구조에서나 싱가포르기업은 단숨에 서구수준에 이른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대대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Seoul Natonal University
News Letter : School of Econonics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소식지
제007 호 발간일 :2003 년 11 월12 일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교수기고
·동문기고1
·학생기고1
·학생기고2

동문기고1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강성욱(경제80학번, 컴팩코리아 사장)

마흔이라는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고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것만 같다. 세월은 정말이지 쏘아버린 화살같다. 물론 나도 20대는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다음 방학은 또 언제오나'하며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던 날도 많았다.

사실 휴교가 반이상이어서 제대로 수업을 받아본 기억도 없지만 그래도 방학이라는 멋진 휴가는 특별했다. 요즘의 대학은 20년전 보다 더 삭막하다고 들었다. 이념과 현실참여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취업난이 대학생활에서 낭만과 여유를 많이 앗아가고 있다고.

최근 신입사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더니, 서울대도 취업난의 예외는 아니라고 했다. 서울대 캠퍼스에 가면 학생들의 눈빛만 봐도 학년을 맞출 수 있다는 농담도 있다고 한다. 자신감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신입생…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자신감은 물론 반짝이는 눈빛마저도 사라진다고.

세상은 넓고 경쟁은 경계가 없다. 고3때는 대학만 가면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지만 막상 서울대를 들어와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 한국에서야 가장 높은 입학점수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대학이지만, 이미 해외의 명문 대학 졸업장을 소지한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 서울대 졸업장도 별로 경쟁력이 없다. 게다가 세상에 나와보면 나이도 중요하지 않다. 학교 다닐때나 학번이 중요하지 사회에 나오면 학번과 나이로 선점할 수 있는 혜택도 없다.

즉, 세상은 세대와 국경을 넘나드는 무한경쟁시대이다보니 학력도, 학벌도, 나이도, 성별도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일 수 있지만, 경제학부를 다니는 젊은이들에게는 바로 기회일 것이다. 게다가 경제학은 사회에 나와 경제에 발을 딛는 순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학문이니 여러분은 정말 좋은 기회를 가진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내가 회장으로 있는 경제인들의 친목모임에 지난 3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시사평론가 유시민 박사를 초대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 여럿 있는 이 모임에서 학창시절에 대한 회고는 다들 달라도 경제에 대한 견해는 일정부분 합의했다. 나는 이것이 바로 경제학과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학과를 다니는 동안 다들 다른 경제학자의 이론을 추종하고 졸업 후 각기 다른 업계에서 일하게 되어도 시장에서의 경쟁은 결국 유사한 경제관을 갖게 한다. 경제학의 매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과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경쟁에 있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오늘 내가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바로 '시장과 경쟁'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실력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서울대 경제학과라는 학력과 학벌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기에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한다. 1984년에 내가 졸업할때, 내 동기들은 고시를 통해 행정부의 일원이 되거나 혹은 은행 등 금융권에 들어갔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선택한 길에 만족하는 정도는 너무 다르다. 일단 한번 시작하면 바꾸기 어려운 것이 직업이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자신들의 과거를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경제학과 동기들 사이에 '좀 이상한 진로를 선택한 사람'에 속한다. 그 당시 컴퓨터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요즘 동기들이 모이면 내가 가장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금 사람들이 열병처럼 쫓고 있는 것을 내가 쫓는다면 내 손아귀에 들어올 쯤에는 이미 옛것이 되고 만다. 내가 선택한 것이 주류가 될 수 있게끔 선택해야 하고,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최고가 될 실력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말했지만 시간도 세월도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 쏘아버린 화살처럼 빠른 세월이지만, 흘러가는 방향과 목표는 있는 법이다. 빠른 변화 속에서도 변화의 원리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학도야말로 인문학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힘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경제학도들이다. 또한 공학도와 같은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분야의 질서를 알아야 할 필요도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기술은 아닐지라도 시장의 흐름은 바로 경제학의 대상인 것이다.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4년이라는 유예된 시간은 무한경쟁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말고, 자신을 위한 니치마켓을 찾아야 한다.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지식, 크고 작은 경험들이 교과서의 지식보다도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줄 무기가 될 것이다. 수단으로서의 경제학을 공부하기 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론으로서의 경제학을 즐기면서 관심의 영역을 넓히길 바란다.

漫評의 미학

이상극 (경제학부 98학번)

오늘날은 그야말로 매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다. 텔레비전은 공중파방송에 위성방송까지 더하면서 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인터넷은 특유의 신속성으로 틈새를 파고들며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장 오랜 매체인 인쇄매체는 낮은 초기투자비용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꾸준히 그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제학부 소식지가 그러한 홍수에 휩쓸리지 않는 유의미한 인쇄매체이길 바란다.

각종 매체는 다양한 코너를 통해 당시의 시대를 편집진의 시각으로 읽어내고 그 생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그 시대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 나에게 그러한 질문을 한다면 나는 “한 컷짜리 그림으로 이루어진 만평”이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그 이유가 내가 햄버거와 라면에 길들여진 인스턴트 세대여서 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단순하고 작은 그림 한 장과 그 아래에 붙여진 짧은 코멘트를 통해서 그보다 더 당대의 시대상을 날카롭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90년대 초반 한계레 신문의 그림판을 맡았던 박재동 화백의 그림들이 그 시기 그 어떤 명문의 사설보다도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최근 우리는 하나의 만평이 각종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2002년 4월 15일 발간된 서울대 동창회보에 실린 만평이다. 이미 다 알겠지만 잠시 그 만평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마른 체구의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차시기는 이미 실패했다. 그가 도전하는 높이는 두 자의 한자로 표현되어 있다. 바로 商高라는 글자이다.

그 그림이 두 번 다시 서울대 출신의 후보가 고졸출신에게 대통령선거에서 질 수 없음을 표현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서울대 출신의 후보, 바로 우리의 동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함을 단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만평을 그린 서울대를 졸업했다는 선배님이 어떠한 연유로 상대 후보에 비해 서울대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만평만을 보자면 그 이유는 상대방은 상고출신이고, 선배님이 지지하는 후보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그림이 서울대 동창회보에 실린 것을 봐서는 서울대 동창들이 하나로 똘똘뭉쳐 이번에는 기필코 서울대 출신 대통령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시려는 듯 하다.

그야말로 서울대 지상주의, 저속한 학벌주의, 내용없는 엘리트주의가 하나의 티도 없이 고스란히 만평에 담겨 있는 것이다. 바로 지금의 시대상을 서울대의 이름으로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대를 졸업한 수많은 선배님들이 지켜보는 총동창회보에서 말이다.

나 역시 “商高”자의 주인공인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될 정치인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학력이 고졸이고 그가 서울대의 졸업장을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현재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총체적인 논리체계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의 논리체계가 나의 그것과는 다르기에 그를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그 논리체계라는 것은 개인의 세계관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대통령의 세계관에 관한 것은 아니기에 이 글에서 내가 바라는 대통령, 그리고 내가 그리는 국가기구의 모습을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학벌로서 대통령의 적임자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물론 그러한 논리체계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다양한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 스무해를 조금 더 산 나는 만평을 그린 대 선배님에 비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짧은 식견을 가졌음을 인정한다. 사회 경험 역시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그 선배님은 나보다 더 많은 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商高"출신의 후보를 평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평의 그림을 봤을 때, 그러한 분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서울대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더욱 출중하다면 그것이 그가 가진 졸업장 때문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商高출신의 후보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서울대 졸업장을 가지지 못해서는 아니어야 한다. 만약 만평을 그린 선배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뛰어넘어야 할 것은 商高라는 글자로 표현될 수 없다.

적어도 나는 한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의 능력과 인품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유치원에서부터 배웠다. 적어도 그의 외모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배웠다. 그와 똑같이 그의 학벌 그 자체가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아님을 배웠다. 나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모두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면 나의 생각은 옳다. 그리고 그 만평은 분명 잘못되었다.

나는 그 만평을 그린 선배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생각은 없다. 그 이유가 그분이 나의 동문 선배이기 때문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3월말 이후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화갑, 정동영, 이인제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만평은 바로 그 시대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울임에 틀림없음을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배님 개인을 비난하지 않는 것은 그 분 역시 지금의 시대가 낳은 또 한 명의 불우한 서울대인이기 때문이다.

저속한 학벌주의와 엘리트주의를 청산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관점의 전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식의 의미를 고등교육을 통해 습득된 것이라고 그 범주를 좁히더라도 그것이 나 개인의 전유물일 수는 없다. 한 시대의 지식은 그 당대의 사회가 총체적으로 구성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 토양을 둔 지식이라면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4천만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 하였기

에 오늘날의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지식이 구성되는 것은 마치 역사가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의 한발 내디딤이 모여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지식을 더 갖춘 “내”가 그에 걸맞는 정치, 경제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역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식은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을 가진 “나”는 다른 이들과 함께 만든 지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의 졸업장을 가지게 될 “나”는 사회를 지탱하는 수많은 능력 중 지식이라는 능력을 갖춘 한 명의 노동자일 뿐이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경제학부 소/식/지
•인사말
•경제학부소식
•교수기고
•동문기고1
•학생기고1
•학생기고2

대학원의 지적생산능력을 생각한다.

김명록(대학원 석사과정)

미국을 다녀온 어떤 사람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자연이 내려다 준 엄청난 혜택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일일생활권”이라는 말로 국토의 좁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와는 반대로, 몇 일을 달려도 국토의 끝에 당도할 수 없는 광활함, 그리고 그 광활한 땅덩어리 곳곳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자원들. 이는 자연의 선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20세기와 현재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유리한 자연조건에서만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역사적 상황마다 미국이 보여준 작태들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강대국일지는 몰라도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전혀 대국이 아님을 반증하였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강성함이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찬사를 보낼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식생산능력”은 높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에서 자신의 전문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모두 “기회의 땅” 미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그리고 이 기회의 땅은 경제적 풍요를 이들의 성과에 대응하여 제공해 주었다. 이는 경제학의 분야에도 마찬가지이다. 2차대전 이후의 노벨경제학상을 휩쓴 나라도 미국이 아닌가?

지식생산능력? 이것은 아무런 토대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허공 속의 누각이 결코 아니다. 숱한 기간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축적된 결과 만들어 질 수 있는 성과일 것이다. 전대의 성과에 창의적으로 한걸음 전진한 결과 새로운 성과들이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의 전제조건은 당연히 전대의 성과가 얼마나 풍부하게 존재하는가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생산능력은 곧 지식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의 학습방식과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학문적 성과는 지금까지의 지식축적이라는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와 반대로 그러한 지적 토대가 오히려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물론 경제학이라는 분야의 성격으로 인하여 경제적 현상이 가장 민감하게 진행되는 미국에서의 학습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제분석조차 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어떨까? 경제학의 일정부분은 분명히 한국 내에서의 지속적인 지적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당장은 실용적이지 않지만 분석의 도구가 되는 순수이론분야에 대한 지적토대구축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수이론의 지원없이는 현실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아주 구체적인 방안들을 통해서, 점점 취약해지는 국내 연구여건이 점차 개선되었으면 한다.

현재 경제학부 대학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숫자 역시 대폭 늘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이렇게 증가된 대학원생들이 미래의 우수한 연구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한다.

Copyrights 2003 School of Econonics SNU.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